건물신축 주민동의제 논란

서울 강남구청 민원예방위해 4년째 시행

건축주 "불필요한 규제… 금품제공 폐단도"

서울 강남구가 건축허가 관련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 중인 '주민의견 수렴제'(건축허가 신청 시 반드시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주들은 6일 건축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이 제도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는 기간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동의서를 받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금품까지 제공해야 하는 폐단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의견 수렴제란**=강남구가 1999년 12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구청장 지침으로 도입했다. 건축 대상 부지와 맞붙어 있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건축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건축 허가권자인 구청장 지침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축주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초기에는 모든 건축허가 신청 건물에 적용했지만 건축주들의 반발로 인해 2000년 6월 5층 이상 건물로 적용대상이 축소됐다.

▽**애타는 건축주**=삼성동의 대지 70평에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건축 동의서를 받느라 1000만원을 썼다.

김씨는 "동의서를 받기 위해 이웃 주민들에게 돈을 준 것보다는 설득을 하느라 건축허가가 5개월가량 늦어진 것이 더 손해였다"며 "불필요한 행정규제 때문에 건축주만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책은 없나**=현재 동의서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건축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구청 건축민원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것. 이 심의에서 건축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주민 동의서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 건수는 많아야 30여건에 불과하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건축허가 관련 민원이 70%가량 줄어들었다"며 "몰지각한 주민 외에 건축주가 주민을 속이는 사례도 있는 만큼 민원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고 동의서에 건축조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사진제공 춘천교대 동아리 '여미사'

춘천교대생들이 6일 전남 해남군에서 강원 춘천시까지 도보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출정식을 갖고 있다.

옛길 답사 1600리 '국토 체험'

춘천교대생 8명 해남~춘천 17일간 도보행진

"조상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국토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1600리에 이르는 옛길 답사에 나섰습니다."

강원 춘천교대생 8명이 6일 한반도 최남단인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춘천까지 도보 탐험에 나섰다.

이들은 학교 동아리 '여미사(여행에 미친 사람들)' 회원들로 이날 오전 땅끝 전망대에서 출정식을 갖고 22일까지 16박1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전남 해남을 출발해 영암~나주~광주~전북 정읍~전주~충남 논산~부여~공주~충북 청주~충주~강원 원주~홍천을 거쳐 춘천까지 650여㎞에 이르는 길을 답사할 예정.

이들은 이번 답사길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도 펼친다. 설 연휴기간인 10일부터 이틀간 광주지역 양로원과 고아원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노래공연과 목욕봉사 등을 하며 이웃사랑을 나눌 계획이다.

이 학교 동아리회원들의 옛길 답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는 8월7일부터 15일간 회원 9명이 부산~경남 양산~밀양~경북 청도~대구 달서~경북 칠곡~선산~상주~문경~충북 충주~강원 원주~횡성~홍천~춘천까지 600여㎞를 도보로 완주했다.

이번 답사길에는 지난해 완주한 2명이 참가했다.

동아리 회원들이 2년째 도보 탐험에 나선 것은 3년 전 일본인 유학생이 이른바 '영남대로(부산~충주)'를 답사하고 '옛 지도 따라 옛길 걷기'란 책을 펴낸 데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란 것.

탐험대장 박찬수(朴燦修·25·미술교육과 3년)씨는 "일본인이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묻은 옛길을 답사하고 책까지 낸 데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며 "온몸으로 국토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예비교사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해 옛길 답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해남=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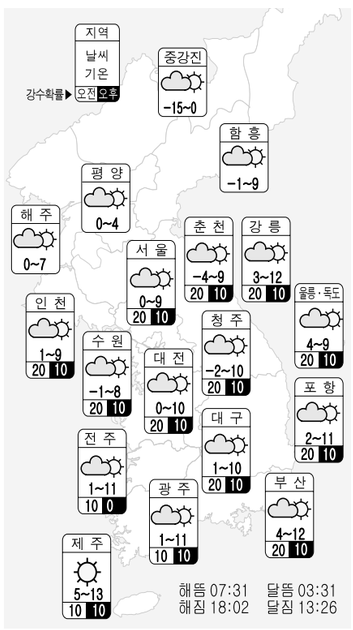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빗장 푼 봄… 꽃바람 솔솔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서쪽지방부터 점점 맑아지겠다. 아침에 곳에 따라 안개. 아침 최저 영하 5도~5도, 낮 최고 7~13도.

해상	풍향	풍속	파고
서 해	서~북서	7~12m	1~2.5m
남 해	서~북서	7~13m	1~3m
동 해	서~북서	9~16m	1.5~4m

지역	만조	간조
부산	04:46 17:17	11:05 23:28
인천	00:15 13:31	06:29 19:48
목포	10:36 22:23	02:48 16:17
군산	11:33 23:45	05:25 18:39



WN 웨더뉴스 www.weather.co.kr

● 내일·모레날씨

	중부	영동	충청	호남	영남
8(금)	가끔	가끔	가끔		
9(토)		가끔			

● 생활 지수

빨래 80	세차 30	운동 80	외출 80	우산 20
안심하고 실외 건조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충분히 즐기세요	외출하는데 지장 없어요	필요없어요

● 세계의 날씨

베이징	흐림	0/12	LA	흐림	7/19	런던	비	6/9
홍콩	흐림	16/21	뉴욕	눈	-1/5	파리	흐림	4/5
도쿄	흐림	1/12	워싱턴	비	1/6	베를린	흐림	2/6
타이베이	흐림	13/20	시카고	흐림	-2/5	모스크바	흐림	-1/3
싱가포르	흐림	22/31	호놀룰루	맑음	16/27	로마	흐림	3/11
방콕	흐림	22/32	토론토	눈	-6/1	시드니	비	17/23

재건축조합 인가받으려 인감증명등 수천장 위조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보다 먼저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 허가 없이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수천장을 위조하거나 부정으로 발급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6일 서울 S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 최모씨(54)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위조에 필요한 원본 서류 등을 구해준 재건축 브로커 유모씨(4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모 신용정보회사 간부 홍모씨(33) 등에게 주민 몰래 재건축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으로 발급 받도록 부탁한 혐의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홍성맵

김좌진 장군 사당 준공

백야 김좌진 장군 사당 준공식 및 추모대제가 6일 충남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생가 인근에 조성된 사당에서 주민과 행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방부 '美軍관련 민간인 피해' 40건 접수

파장우려 일부지역 조사 외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례 40건이 국방부에 접수됐으나 군 당국이 파장을 우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현장조사를 금지하는 등 후속조처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이 6일 입수해 공개한 국방군사연구소(현 군사편찬연구소)의 '민군관련사건 연구결과보고' 문건에서 확인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접수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사례는 미군 관련 40건과 한국군 관련 2건 등 모두 42건이며, 미군 관련 사건 중 38건에서 인명피해가 신고됐다.

특히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된 곳만 해도 △충북 단양군 영춘면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전남 여수시 남면 △경북 포항시 송골 등 4곳으로 미군기 사격이나 미 군함 포격으로 100~300여명이 사망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문건은 1999년 7월 계획보고 시 국방부 장관이 "제주 문경 함평 영동 나주사건 등은 군이 보유한 자료를 섭렵해 문제해결을 뒷받침하되 차후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남원 임실 고창 순창)은 손도 대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부시 訪韓 반대"

시민단체 회견 잇따라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9개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미국 대사관 옆 인도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에 전쟁위험을 높이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해 21일까지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며 18일 각계 인사 500명의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등 각종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족문학작가회의(이사장 현기영)도 6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작가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믿음과 요행

실로암 사람들 중에는 미신을 믿거나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살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해결되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등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며, 범사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추호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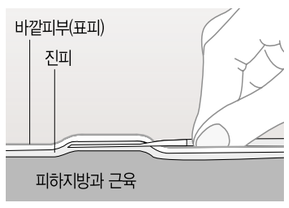
피부속에 넣는 피임약 4월말 국내시판

피부 밑에 집어넣어 장기간 피임효과를 얻는 피임약이 4월 말부터 국내에서 시판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오가논은 피부 밑에 삽입하는 피임제제 '임플라논'을 유럽 동남아 호주 브라질 등에 이어 국내에서도 판매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임플라논은 피부 밑에 삽입하기만 하면 3년간 피임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기존 피임약처럼 매일 먹는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임플라논은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주로 위팔 안쪽 피부 밑에 시술한다. 시술 시간은 평균 1.1분이 걸리며 이식한 날부터 피임효과가 나타난다.



한국 오가논사는 "여성 2362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이 피임제 시술 후 임신한 경우는 전혀 없었지만 20.8%의 여성에게 월경이 없어지고 26.1%는 월경기간과 월경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머리카락 만드는 세포 생성물질 日개발

일본의 스미토모(住友)전기공업이 세계 최초로 발모세포를 만드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지금까지의 발모제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머리카락이 잘 자라도록 하는 '간접자극방식'이었으나, 새로 개발된 EPM이라는 물질은 직접 발모세포를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다는 것. 탈모 현상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포(毛包)세포'가 활동을 중지하면 일어나는데, 활동을 멈춘 모포세포에 EPM을 바르자 새 발모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쥐에게 낮은 농도의 EPM을 매일 한 번씩 35일간 발라준 결과 실험 전 면적당 5%에 불과했던 털이 90%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청탁받고 승부조작 혐의 태권도協 前간부 둘 구속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朴用錫 부장검사)는 6일 태권도 경기에서 입상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윤택씨(49·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임씨와 공모해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간사 김광현씨(42)도 구속했다.

임씨는 98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송모씨에게서 아들이 태권도 경기에서 입상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부음

◇尹範植씨(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관)별세·邰植씨(한국통신 강남본부 직원)백씨상=6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 031-384-2464

◇任聖宰(파워공인중개사 대표)政宰씨(고려대 안암병원 구매과 직원)모친상=6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반 02-929-6499

◇林翰均씨(대우증권 삼풍지점 과장)부친상=6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31-386-2345

◇曺相振(㈜ROTC 대표)相哲씨(진로종합유통 대표·진로 사업구조조정실 부사장)모친상·鄭基昌씨(㈜한국영상 부회장)빙모상=6일 서울중앙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3010-2293

◇金賢中씨(통계청 총무과 서기관)부친상=5일 충남대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42-253-4006

◇孫日善(삼선개발 전무이사)文善(㈜제니큐 대표)善淑씨(동보주택 감사)모친상·趙眞生씨(을지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빙모상=5일 서울중앙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반 02-3010-2292

◇宋寅大씨(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본부 부부장)모친상=5일 대전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10시 042-531-0453

◇尹暻老씨(진우여행 회장)부친상·權一皓씨(㈜원남 사장)빙부상=5일 강북삼성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반 02-2001-1096

◇李朝永(사업)宗燦(〃)宗宇씨(중앙일보 광고본부 차장)부친상=5일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 2리, 발인 7일 오전 8시 054-783-2009

◇金鉉錫씨(자영업)모친상·金奎鎭씨(공군본부 공보과장)빙모상=6일 서울대병원, 발인 8일 오전9시 02-760-2032

33평형

용인 구성 와이드빌 임대아파트

아파트 ; 3600~8700 만원

경전철 어정역, 분당↔동백 전용도로 예정
실수요자가 많은 투자가치, 내년 8월 입주
▶모델하우스:오리역→벽산입구→죽전사거리
광 도 건 설 (주)
☎031)272-3336

☞ A28면에서 계속

⑦【분할상환시 이자 가산】 **입찰번호 20,21,22,34,35번** 물건은 분할상환시 미납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20,21,22번**:연15%의 이자, **34,35번**:국민은행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⑧【매수자격제한】 **입찰번호 20,21,22번** 물건은 정부의 5.8부동산 대책관련 물건으로 해당계열기업군소속 기업체 및 계열주와 특수관계인, 검찰 및 국세청에서 발표한 투기행위자, 한국국적의 재외교포로서 외국환규정에 어긋나는 외화반입에 의한 경우 기타 관계법령 및 정부가 발표한 규제사항에 해당하는 법인 및 자연인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⑨【기타 물건별 특약】 **입찰번호 85번**의 건물은 콘테이너하우스로 매수자는 현상태대로 인수받고 이로인한 제반문제 발생시 매수자 책임하여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일 반 조 건

①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쓰레기,산업폐기물 포함)의 명도나 철거는 매수자 책임이며, 매매목적물에 표시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무허가건물철거명령에 따른 철거책임(이행강제금, 벌과금 등 제비용 부담포함)과 철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감소로 인한 손해도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물건의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현황도로 등)와 환지 등으로 인한 감평, 미등기건물 및 기계기구 등의 행정상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상태대로 매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할부매매계약 체결이후 매수자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자 가산없이 할부금 원금만을 반환합니다.
④ 잔대금 납부기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금 및 기타관리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⑤ 명도소송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명도가 지연될 때의 명도시기는 그 물건의 명도소송이나 집행결과에 따르기로 합니다.

-. **명도책임 : 매도자** (단, 4,5,7,9~15,17,18,19,23,25,26,29,32,50,57,60,62,63,64,68,76,101,103,107,112,116~150,159~162번 물건은 매수자 책임입니다.)

-. **입찰일시**

차수	일 시	차수	일 시
제1차	2002년 2월18일(월) 11시	제4차	2002년 2월19일(화) 11시
제2차	2002년 2월18일(월) 14시	제5차	2002년 2월19일(화) 14시
제3차	2002년 2월18일(월) 15시	제6차	2002년 2월19일(화) 15시

(2차이후 입찰은 전차입찰에서 유찰된 물건에 한합니다.)

-. **입찰장소**

입찰번호별	입찰집행장소	소 재 지	전화번호
1-24	본사 3층 입찰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02)3420-5555
25-28	인천지사 지하1층 입찰장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02-1	(032)509-1528
29-37	강릉지사 3층 입찰장	강릉시 임당동 139	(033)640-3408
38-46	청주지사 3층 입찰장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043)279-2412
47-57	대전지사 4층 입찰장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64	(042)601-5181
58-66	전주지사 2층 입찰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063)230-1741
67-79	광주지사 6층 입찰장	광주시 금남로 5가 183	(062)231-3077
80-85	대구지사 10층 입찰장	대구시 수성구 중동 179	(053)760-5033
86-111	부산지사 6층 입찰장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44	(051)250-5643
112-163	창원지사 2층 입찰장	창원시 중앙동 94-3	(055)269-8051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로 최저매매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 낙찰합니다.**
다만 23,34,35,38~43,58,61~64,116~150,158,159번 물건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지참물 : 인장 및 주민등록증 (단, 대리인 입찰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 **보 증 금** : 입찰금액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로 입찰서와 동봉 납부합니다.

-.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 귀속으로 합니다.
② 국토이용관리법 및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거래 신고 · 허가대상물건에 대하여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우리 공사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 귀속으로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① 계약체결일을 기준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금과 동 물건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원보수 등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매매목적물이 농경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소유권)이 제한되는 사항은 매수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므로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공고된 물건중 연고자에 의한 환매계약 등의 물건은 별도 취소공고없이 입찰에서 제외합니다.
④ **기타 조건은 우리 공사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며 동 양식은 부동산프라자에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2월 7일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탁업무부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대)3420-5000

안내

1. 우리 공사에서 매각하는 금융기관 · 기업소유 부동산은
- 입찰에서 안 팔릴 경우 다음 공매전까지 위 입찰조건으로 누구든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대상중 3회이상 유찰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됩니다.
- 매수하신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매수자 명의변경, 사전 점유사용 또는 사전 소유권이전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물건별 담당자와 상담요함)

2. 우리 공사에서는
-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2시 부동산투자설명회를 본사 3층 강당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매각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 및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상 담 : 본 · 지사 부동산플라자(매각상담실)
☎ 02) 3420-5555, 080-347-5000(수신자 부담)
· 열 람 : 인터넷 : **http://www.kamcoland.co.kr**
PC통신 (천리안 · 하이텔 · 유니텔) : **go Kamco**

다음 공매공고(금융기관 · 기업소유)는 2002년 3월 7일 경향신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